

## 흔들리는 객관성 당연시 됐던 저널리즘 가치, 맹점 없는지 검증해야 하는 시대로

에드슨 탠독 / 난양기술대 위김위 언론정보대학원 부교수



필리핀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한 편집자와 나눈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분명히 잘못된 주장을 하는 정치인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진실을 추구하는 신문 지면에 거짓말이 끼어들 틈을 주면 안 되지만, 유명 정치인의 도발적인 발언은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뉴스거리임에는 분명했다.

이 상황에 대해 당시 10여 년 경력의 편집자는 이런 조언을 했다. 언론인이 취재원을 밝힐 때, 언론인은 취재원이 실제로 그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내용의 진위는 언론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

니라는 것이었다. 그 조언을 듣고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대화가 기억난다.

취재원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방식은 논란의 여지는 있되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과는 일치한다. 언론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판단은 개별 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다른 한편으로 허위 주장에 지면을 할애하면 거짓말 전파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며, 이는 진실 보도라는 언론의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그렇다면 취재원이 허위 또는 오류임이 분명한 주장을 할 때 언론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객관성은 과언 언론의 기준인가



데이비드 민디치(David Mindich)는 저서 『사실만 보도하라: 미국 저널리즘의 금과옥조가 된 객관성(Just the facts: How ‘objectivity’ came to define American journalism)』에서, 객관성이 미국 저널리즘의 ‘절대적 신’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언론인들은 무엇보다 객관성을 중시하도록 사회화됐다는 것이다. 뉴스 소비자들 역시 같은 생각인 듯하다. 2017년 내가 라이언 토마스(Ryan Thomas) 미주리대 저널리즘 교수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기사가 비객관적인 기사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객관성을 ‘저자의 개인 의견 또는 가치판단이 배제된 상태’로 정의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널리즘 스쿨에서는 기사를 작성할 때 가치판단이 개입된 단어를 피하라고 가르친다. 형용사를 피하고,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직접 접 인용을 하라는 것이다. 언론사에서도 사설란을 운영하기는 하나, 대개 사설란은 언론인의 편향성에 서 자유로워야 하는 일반 뉴스 기사와 분리돼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객관성을 언론의 기준으로 여기는 관행에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 왔다. 사회학자 게이 터크만(Gaye Tuchman)은 저서 『메이킹 뉴스: 현실의 구성에 관한 연구(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에서, 언론인들이 편향적이라는 비난과 잠재적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의식(strategic ritual)’으로 객관성을 채택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성이라는 지배적 개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언론인이 사람들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다(he said she said)’는 식의 기사가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결국 발언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독자의 뜻이 된다.

토마스 패터슨(Thomas Patterson) 역시 저서



**객관성이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나, 세계의 많은 언론인은 그간 객관성이 주로 정의돼 온 방식의 한계 또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헤드라인에 허위 주장을 보도하면서도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명백히 지적하는 관행이 보편화하는 추세다. 가짜뉴스의 부상으로 많은 언론사가 팩트체킹을 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다룰 때는 반론을 실어주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의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뉴스 생태학: 정보의 오염과 지식 기반 저널리즘(Informing the news: The need for knowledge-based journalism)』에서, 저널리즘이라는 분야의 핵심이 겸종에서 주장으로 넘어간 현실을 개탄했다. 객관성에 대한 지배적 해석은 맥스웰 보이코프(Maxwell Boykoff)와 줄스 보이코프(Jules Boykoff)가 말하는 ‘허구적 균형(false balance)’을 낳았다. 언론인들은 상반되는 견해, 또는 언론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양쪽의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이는 당초 의도와 달리 양측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 기후변화 보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공감대가 과학계에서 폭넓게 형성돼 있으며 그 증거 또한 상당하지만, 기후변화를 의심하는 이들에게도 동일

한 발언권과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라이언 토마스와 내가 아만다 히넌트(Amanda Hinnant) 미주리대 언론학과 교수와 진행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도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한 정치인이 백신과 자폐증 간의 관계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미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정치인은 선거운동 기간 잘못된 주장을 했다. 우리는 공동 연구에서 언론인이 처한 딜레마에 대해 지적했다. 공직에 출마하는 정치인이 선거운동 기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는 행위는 언론인이 기사를 통해 추구하는 뉴스의 가치에는 상당히 어긋난다. 그러나 후보의 견해에 대해 유권자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계가 이미 반박 주장에 전파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이 주장을 보도한 언론인들 역시 음모론이 창궐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셈이다.

코로나19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언론인들은 수많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국가 지도자가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고, 소독약을 마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멸될 수 있으며, 사용한 마스크를 석유로 빨아 바이러스를 없앤 다음 재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언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보도하는 일은 대중에게 지도자들의 수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도에 나온 허위 주장을 믿고 그대로 했다가 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다.

## 한계를 깨닫고 자성 필요할 때

빌 코바치(Bill Kovach)와 톰 로젠스틸(Tom Rosenstiel)은 공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The Elements of Journalism)』에서, 객관성이 “저널리즘에서 가장 심각한 혼란 초래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객관성은 언론인 자체가 아니라 언론인의 보도 방법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성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언론인들은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언론사들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해 보도할 때 객관성이라는 원칙을 가볍게 무시한다. 자국팀의 승리는 대대적으로 축하하면서도 상대 팀의 입장은 동등하게 청취 또는 보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객관성이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나, 세계의 많은 언론인은 그간 객관성이 주로 정의돼 온 방식의 한계 또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헤드라인에 허위 주장을 보도하면서도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명백히 지적하는 관행이 보편화하는 추세이다. 가짜뉴스의 부상으로 많은 언론사가 팩트체킹을 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다룰 때는 반론을 실어주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의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의 허위성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해당 허위 주장을 반복 보도하면 의도와는 달리 가짜뉴스가 더 퍼지고 대중들이 팩트체크가 아닌 허위 주장을 기억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언론계에서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언론인이 실제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서 저널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계의 이러한 자성은 꼭 필요하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저널리즘이 공격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에드슨 탠독(Edson C. Tandoc Jr.)은 미주리대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위김위 언론정보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그간 뉴스 및 소셜 미디어 메시지의 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뉴스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어떻게 독자들이 언론의 중요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언론 규범을 재정립하는 데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뉴스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가짜뉴스의 확산을 어떻게 부추기는지에 대해 다뤘다. 그의 최근 프로젝트는 정보윤리이니셔티브(Information Integrity Initiative) 홈페이지([blogs.ntu.edu.sg/in/](http://blogs.ntu.edu.sg/in/))에서 볼 수 있다.

# Challenge and change the journalism's taken-for-granted practices

Edson C. Tandoc Jr.

When I was still working as a newspaper reporter in the Philippines, I had a conversation with one of my editors that I still vividly remember.

I had an interview with a politician who made obviously false claims. I was not sure what to do. Lies should not have a place on the pages of a newspaper in pursuit of truth, and yet a high-profile politician making provocative statements is definitely newsworthy by traditional standards.

There were not enough chairs around his desk, so I had to kneel while I spoke to him. Then, my editor, who was a reporter for a decade or so, gave me this advice: When journalists attribute information from a source, they are responsible in making sure that the source really said what is being quoted—whether what the source said is true or not is beyond a journalist's control.

This advice, however, made me uncomfortable,

which explains why I still remember that conversation up to this day.

On one hand, merely reporting what a source said is arguably consistent with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what objectivity in the news should be—journalists just report the facts as they are, and the readers make their own judgment.

On the other hand, providing space for false claims helps propagate those lies, which runs counter to truth-telling as the bedrock of journalism practice.

What should journalists do when a source makes claims that are obviously false or incorrect?

In his book “Just the facts: How ‘objectivity’ came to define American journalism,” David Mindich described objectivity as the “supreme deity” of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ts have been socialized to valorise objectivity above all things.

News audiences seem to think the same way.

A 2017 study I co-authored with Ryan Thomas, a journalism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found that objective articles tend to be rated as more credible than non-objective articles. In this study, we defined objectivity as the absence of the author's personal opinions and value judgments.

Indeed, in most journalism schools, students are taught to avoid value-laden words when writing news. Avoid adjectives. Use neutral words. Attribute direct quotes. News outlets also include opinion pieces, but these are usually separated from regular news articles, which are supposed to be free from journalists' biases.

Scholars, however, have long questioned objectivity as a journalistic standard.

In her book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sociologist Gaye Tuchman argued that objectivity had become a "strategic ritual" for journalists to protect themselves from accusations of bias and possible libel suits.

In pursuit of dominant notions of objectivity, journalists tend to report what others say, resulting in a he-said-she-said template, and audiences are left to sort what is true from what is not.

Thomas Patterson, in his book "Informing the news: The need for knowledge-based journalism," also lamented the shift from journalism being a discipline of verification to a discipline of assertion.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objectivity has also led to what Maxwell Boykoff and Jules Boykoff called "false balance," where journalists present competing perspectives—or what

journalists call two sides to a story—that might instead lead to the wrong impression that both sides are equally valid.

This is what happened, they argued, with media coverage of climate change that also gave equal voice and legitimacy to climate change sceptics, despite overwhelming consensus and evidenc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showing that climate change is real.

In a study that Ryan and I conducted with Amanda Hinnant, also a journalism professor at University of Missouri, we found the same issue around the news coverage of a politician's conspiracy theory about the link between vaccination and autism, one that is un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but was given prominent coverage by the news media in the United States.

The politician made the erroneous claim during an election campaign. In the study, we noted that this presented journalists with a dilemma: A political candidate, running for public office, making a scientifically wrong claim during a campaign ticks most of the news values that journalists look for in a story; voters also have the right to know how and what a candidate thinks.

And yet by providing airtime and space for a claim already disputed by science, those who reported about the statement also provided oxygen for the conspiracy theory to thrive.

The COVID-19 pandemic has spotlighted this issue as well, confronting journalists with a host of dilemmas.

What should journalists do if a state leader claims that a) it was not necessary to wear a face mask; b) ingesting disinfectant can kill the

COVID-19 virus; and c) washing used face masks with gasoline can kill the virus so that the face masks can then be reused.

Reporting about top government officials making such obviously and scientifically wrong claims informs the public about the quality of leaders they have. But doing so has also led to misinformed behaviours that have harmed some individuals.

In their book “Elements of journalism,” Bill Kovach and Tom Rosenstiel referred to objectivity as “one of the greatest confusions of journalism.” They argued that objectivity was not supposed to refer to journalists, but to their methods.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objectivity has obvious limitations that journalists do not always recognize. It is, for example, a standard that is readily dropped when news organizations report about international sports events and celebrate their national team’s victory without giving equal prominence to, or getting the side of, other nations’ teams.

While objectivity remains to be an important standard, many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are also starting to realize the limitations of how it has been mostly defined.

It is now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to see headlines reporting an erroneous claim but also explicitly calling it as a lie.

The rise of fake news has led many news organizations to engage in fact-checking, where getting the other side is no longer acceptable when dealing with fake news.

While we still need to do more research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such practices—

for example, some studies found that debunking fake news by repeating the inaccurate claim can expand its reach and potentially misinform those who will remember the inaccurate claim instead of the fact-check—we are indeed seeing more and more journalists becoming willing to challenge and change some of the field’s often taken-for-granted practices.

Such reflection within the journalistic community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 journalism plays in society, and especially so at a time when journalism is under attack across many parts of the world. 

Edson C. Tandoc Jr. (Ph.D., University of Missouri)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Wee Kim We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n Singapore. His research focuses on the sociology of message construction in the context of digital journalism. He has conducted studies on the construction of news and social media messages. His studies about influences on journalists have focused on the impact of journalistic roles, new technologies, and audience feedback on the various stages of the news gatekeeping process. This stream of research has led him to study journ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news consumers as well, investigating how readers make sense of critical incidents in journalism and take part in reconsidering journalistic norms; and how changing news consumption patterns facilitate the spread of fake news. His latest projects can be found on the Information Integrity Initiative website: <https://blogs.ntu.edu.sg/in/>